



코닥, 비즈니스 이미징 핵심 기술기업 새출발 에반드로 마케팅 부사장 초청 기자간담회 개최

코닥은 최근 챗터11(파산보호)로 인한 기업 재편 과정을 마무리하고, 비즈니스 이미징에 핵심화된 기업으로 새출발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국코닥은 지난 9월 9일 그랜드 힐튼 호텔 비즈니스센터에서 에반드로 아시아태평양지역 마케팅 부사장 초청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글 | 조갑준 기자 kjcho@print.or.kr

코닥의 최고 경영자 안토니오 M. 페레스 회장은 지난 9월 3일 (현지시간) 사진 현상 및 인화와 관련한 토털 솔루션을 제공하는 '개인화 이미징 사업부'와 스캐너 및 캡처 소프트웨어 등을 제공하는 '도큐먼트 이미징 사업부'를 영국의 코닥 기업 연금 (KPP; Kodak Pension Plan)으로 분할함으로써 파산보호 마지막 단계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로써 6억9500만 달러(약 7600억원)의 자금을 확보한 코닥은 성공적인 기업회생의 절차를 밟았으며, 채권자들에게 진 빚을 청산하고 주식을 할당함으로써 4억 600만 달러(약 4500억원) 규모의 투자도 새롭게 유치했다.

수익성 올릴 수 있는 조직으로 재구성

조직 재건과 관련해 페레스 회장은 “코닥은 비즈니스 시장에서 포장 인쇄, 기능 인쇄, 그래픽 커뮤니케이션, 프로페셔널 이미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재탄생했다”라며 “기업의 재구성과 혁신적인 변화를 통해 튼튼한 자본구조, 건강한 재무구조, 최고의 산업 기술을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코닥은 수익성의 지속적인 성장을 향해 진보하고 있다”며 “인쇄 시장이 급격하게 디지털로 변화하는 현재 트렌드에

부합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코닥의 광범위한 오프셋 포트폴리오와 하이브리드 디지털 솔루션은 고객들이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직원들의 헌신과 유통업체들의 노력은 물론이고, 혁신적인 기술과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영감을 준 고객과 파트너에게도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페레스 회장의 발표처럼 코닥은 기업 재편 과정 동안 기술과 혁신에 대한 투자를 지속했다. 또한 7500개의 활용 가능한 상업 이미징 분야 특히 포트폴리오를 통해 최상의 기술과 솔루션 및 서비스를 프리프레스와 디지털 포트폴리오 전 분야에 걸쳐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코닥은 크기가 적절하면서도 더욱 견재하고 수익성 있는 회사가 될 수 있도록 조직을 재건했다. 아울러 포장인쇄, 상업인쇄, 신문인쇄 및 도서출판인쇄, 엔터프라이즈 및 기능인쇄 솔루션 분야로 나눠 기술 비즈니스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고부가가치·파트너십 강화 계획”


에반드로 마케팅 부사장은 지난 9월 9일의 기자간담회를 통해 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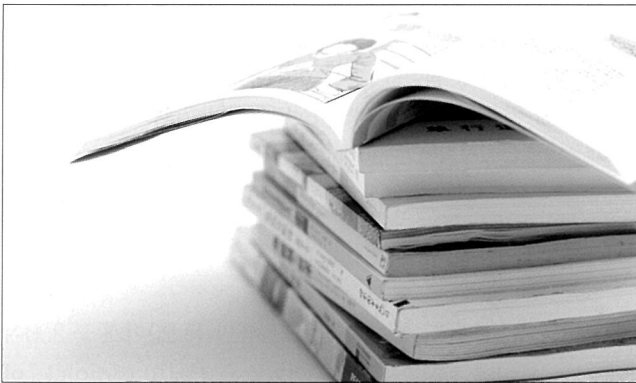
닥의 향후 주력 사업분야와 핵심 역량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에반드로 부사장은 “첫째, 전통방식의 인쇄시장은 코닥이 성장할 수 있는 근원이 되는 분야로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커갈 수 있도록 힘쓸 것이고, 둘째, 패키징 분야는 인쇄시장 중에서도 성장세가 이어지는 곳으로 코닥의 강점인 플렉소 기술을 접목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며, 셋째, 신문인쇄 시장은 코닥의 포지션이 매우 좋고, 시장점유율도 높은 분야로 스타카토 시스템의 잉크절감 기술을 통해 신문사의 고정비용 절감에 기여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신문인쇄에서도 가변데이터 기술이 접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넷째, 기능인쇄 분야는 플렉소 기술을 적용한 태블릿PC의 센서 기판을 예로 들 수 있는데,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로 2015년 이후에 가시화될 수 있을 것이며, 다섯째, 디지털인쇄 분야는 생산성을 올리고, 품질을 높이며, 비용절감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지속 업데이트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코닥의 주요 디지털 인쇄기의 하나인 넥스프레스가 HP 인디고 등에 비해 시장장악력이 떨어졌는데, 최근 볼드체를 표현할 수 있는 잉크와 시스템을 개발하고, 출력사이즈를 넓은 포맷을 발표함으로써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챕터11의 상황 하에서 어려운 점도 많았음을 드러냈다. 그는 “디지털 인쇄기, CTP를 비롯해 인쇄현장에서 활용되는 많은 장비와 솔루션을 예전과 다름없이 생산하고 유통하는 한편, 고객서비스를 진행해왔다. 뿐만 아니라 드루파 2012 기간 동안에는 많은 투자를 통해 인상 깊은 부스와 프로

그램을 선보였는데도 코닥의 미래에 대해 불안하게 생각하는 고객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면서 “이들에게 코닥의 유망한 미래를 전달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속내를 털어냈다. 아울러 코닥의 미래비전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지금은 전통방식의 인쇄에서 디지털인쇄로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지고 있어 코닥과 같은 제조사나 고객인 인쇄인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코닥은 하이브리드 인쇄를 비롯한 고부가가치 인쇄분야에 대한 지원에 힘쓰고, 고객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떠오르는 시장인 패키징 비즈니스 분야의 서비스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장 넓은 범위 인쇄산업 포트폴리오

코닥은 그래픽 엔터테인먼트 상업필름에서 디지털 인쇄 엔터프라이즈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오프셋, 포장, 하이브리드, 디지털 인쇄에 이르는 넓은 범위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 그래픽 분야에서는 디지털 인쇄기, 출력 장치, 통합 워크플로, 관련 서비스가 각 영역에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포장 분야에서는 NX판재, 플렉셀 NX, 통합 워크플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하이브리드 영역에서는 프로스퍼 잉크젯 헤드, 기능 인쇄, 관련 서비스를 공급하며, 디지털 인쇄 분야에서는 프로스퍼 프레스, 넥스프레스, 디지털마스터, 워크플로, 관련 서비스를 갖추고 고객과 만나고 있다. 이는 오프셋, 하이브리드, 디지털 솔루션에 걸쳐 가장 넓은 범위의 인쇄산업 포트폴리오라고 할 수 있다. 



코닥은 출판, 신문인쇄, 포토북, DM 시장 등에서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